

버스 승강장은 택시 정류장?

광주 택시·버스 승강장 가까워 상습 교통체증 초래

택시 기사들 "정차할 곳 부족 어쩔 수 없어"

광주시내 시내버스 승강장이 택시 승강장과 인접해있는 곳이 많아 교통 정체를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경기 불황으로 택시 승객이 급감하면서 택시들이 버스 승강장까지 줄지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불편도 크다. 이에 따라 버스와 택시 승강장 간 간격을 최대한 늘리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오전 8시30분 광주시 서구 광천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버스 승강장. 편도 10차선의 넓은 도로지만 시내버스와 택시, 출근길 승용차가 한데 뒤엉켜 있었다. 먼저 가려는 차량들이 질러대는 경적소리로 도로를 가득 메웠다.

같은 날 오후 6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 앞 버스 승강장. 승강장 바로 옆까지 주정차한 택시들이 길게 늘어 있었다. 북구청 앞 사거리에서 전남대 후문 앞까지 100m 구간이 각종 차량으로 가득했다.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편도 2차선 중 갓길을 택시들이 점령하면서 승강장에 정차하지 못한 시내버스가 도로 한복판에 만들었지만 교통혼잡은 여전했다.

버스 승강장과 택시 승강장이 인접해 있는 동구 급남로 1가도 혼잡하기 길게 점령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 침체로 승객들이 크게 떨어지면서 택시 대기 시간이 크게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 이 때문에 버스 승객들은 차도를 통해 정차한 택시 사이를 위험스럽게 오갔다.

같은 날 오후 6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 앞 버스 승강장. 승강장 바로 옆까지 주정차한 택시들이 길게 늘어 있었다. 북구청 앞 사거리에서 전남대 후문 앞까지 100m 구간이 각종 차량으로 가득했다.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편도 2차선 중 갓길을 택시들이 점령하면서 승강장에 정차하지 못한 시내버스가 도로 한복판에 만들었지만 교통혼잡은 여전했다.

버스 승강장과 택시 승강장이 인접해 있는 동구 급남로 1가도 혼잡하기 길게 점령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 침체로 승객들이 크게 떨어지면서 택시 대기 시간이 크게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 이 때문에 버스 승객들은 차도를 통해 정차한 택시 사이를 위험스럽게 오갔다.

박모(43)씨는 "택시 승강장이 설치된 곳에서 대기하면 좋겠지만, 승객들이 줄면서 승강장이 빈 택시들로 길게 늘어지면서 버스 승강장까지 침범하게 된다"면서 "교통 혼잡을 방해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5년 사이 LPG 가스비는 최고 4배 이상 오른 데다 불황으로 승객이 줄면서 연료를 소비해가면서 운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승강장에서 대기하는 편이 훨씬 경제적이다는 얘기다.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과 성낙문 실장은 "버스 승강장과 택시 승강장의 간격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두 개의 승강장이 인접해서 교통체증을 야기한다면 어느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5일 오전 광주시 서구 광천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버스 승강장에서 내린 승객들이 택시와 다른 차량을 피해 위험스럽게 차도를 건너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가짜 교통단속 카메라 사라진다

광주경찰청 실제 장비 교체하거나 철거기로

운전자들 속이는 것으로 인권침해 지적까지 받아왔던 '가짜' 교통단속 카메라들이 사라진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5일 광주지역에 설치된 모형 단속 카메라 20대(과속 7대·다기능 13대)를 내년 중 실물로 교체하거나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년 1월 서구 농성동 전남 지방경찰청 앞 사거리와 광산구 신가동 극락주유소 앞 삼거리에 설치된 모형 단속 카메라를 철거하고 실제 단속 장비로 교체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나머지 18곳 가운데 절반 가량을 연내에 순차적으로 실물 단속 카메라로 교체하고 나머지는 철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을 기만한다는 지적이 반복돼 모형 카메라를 없애기로 했으나 과속 카메라 구매에 대당 3천만원, 과속과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다기능 카메라 구매에는 대당

4천만원 가량이 들 만큼 많은 돈이 필요해 조치가 늦어졌다"며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신속히 장비를 철거 또는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지역에 모형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광산구에 ▲우산동 고가교 ▲우산동 농업기반공사 앞 ▲산정동 애경 주유소 앞 ▲도산동 도산초교 앞 ▲신가동 극락주유소 삼거리 ▲산정동 성심병원 삼거리 ▲월곡동 월곡 삼거리 ▲하산동 동곡파출소 삼거리 ▲장덕동 하남 산단 4번 도로 입구 등 9곳이며, 북구는 ▲동림동 광신 대교 부근 2곳 ▲일곡동 마트맨마트 사거리 ▲문흥동 모아아파트 사거리 ▲양산동 양산우체국 사거리 ▲청옥동 망월 주유소 삼거리 등 6곳이다.

또 동구는 ▲월남동 주남마을 ▲대의동 한미 사거리 ▲대인동 대인광장 ▲화동 제일시장 삼거리 등 4곳이며, 서구는 농성동 전남경찰청 부근 1곳이다. /최권익기자 cki@



전남 고액 진료비 지출 비율 전국 최고

(연간 300만원 이상)

전남지역의 고액 진료비(연간 300만원 이상) 지출환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2007년 건강보험 고액환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진료비 총액이 300만원 이상이 넘는 고액환자는 전국적으로 162만1천18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들어간 진료비 총액은 11조8천764억원에 달했다.

전남지역의 고액환자는 총 8만9천 116명. 인구 1만명당 529명으로 전국 16개 시·도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전북 487명, 충남 432명, 경북 416명, 강원 387명 순이었다.

전남지역의 고액환자수가 많은 것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전남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은 12.2%로 전국 1위며, 고액환자 비율 상위 5개 도는 모두 노인인구비율이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들이 사용한 1인당 진료비 평균은 전남이 691만원으로, 전북(686만원) 다음으로 진료비 부담이 적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비를 가장 많이 부담한 곳은 서울로 761만원에 달했으며, 광주는 718만원으로 전국 12위였다.

고액환자 진료실적이 가장 많은 전국 20개 병원 중 전남대병원이 11위를 기록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

하게 포함됐으며, 서울아산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1, 2위를 차지했다.

전남대병원이 지난해 진료한 고액환자 수는 1만3천557명으로, 질환별로는 '협심증(1천160명)'→ '뇌경색증(597명)'→ '급성심근경색(504명)' 순이었다.

또 전국적으로 지난해 진료비 1억원을 부담한 환자는 559명으로 ▲유전성 제8인자 결핍증 177명 ▲간암 51명 ▲간의 섬유증 및 경화 39명 ▲골수성 백혈병 34명 ▲유전성 제9인자 결핍증 34명 ▲대사 및 지질 축적 장애 31명 등으로 집계됐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보험금 부당 수령 택시기사 무더기 적발

금융감독원이 15일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개인택시 운전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융원이 지난해 2월부터 수사기관과 공조해 개인택시 운전사들의 입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1천624명이 허위 입원 등으로 50억8천100만 원 규모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개인택시 운전사들은 입원 기간에 자신의 택시에 유가보조금이 지원되는 LPG를 충전하고

영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원은 이번 조사는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정보를 이용해 입원 중인 개인택시 운전사의 병원 부재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올해 5월부터 개인택시 운전자의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의무화됐다고 설명했다.

택시 운전사는 교통사고 등으로 입원할 경우 영업을 하지 못해 경제적 손실이 크지만 이들의 입원율은 73.6%로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 54.8%를 크게 웃돌고 있다. /연합뉴스

"평가원 이메일 해킹 수능자료 빼내"

사설교육업체 팀장 조사

수능성적 분석자료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G사설교육업체 팀장으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 이메일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빼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이 교육업체 팀장 A씨 등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A씨가 8일께 평가원 수능운영부 직원 이메일에서 빼낸 수능 분석자료를 K입업체 관계자에게 전달했고 이 관계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비상에듀 진모 이사에게 넘겼다는 진술을 확보

했다.

비상에듀는 수능성적 발표 전날인 9일 오후 치러진 수능시험의 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 표준점수 최고점 등 성적관련 정보가 담긴 '2009학년도 수능성적 결과분석'이라는 보도자료를 내 수능분석자료 사전유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숫자, 문자를 조합했더니 이메일에 우연히 접속이 됐다'는 A씨 진술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결론 내리고 평가원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이메일 접속기록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이메일에 접속한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관영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공점 : 061) 337-0571

영화·TV 모방 범죄 잇따라

○ 광주·전남 지역에서 영화나 TV 등을 본 뒤 이를 모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긴장.

○ 지난해 27일 광양시에서 10대 청소년 4명이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을 모방한 범행을 저지른 데 이어 20대 남성 2명이 케이블 TV에서 방영중인 '나는 형사다'라는 프로그램을 모방한 강도 짓을 했다가 경찰에 검거.

○ 광주 광산경찰청은 지난 7일 새벽 1시40분께 광산구 모호프집 주인 A(여·43)씨를 위협한 뒤 손과 발을 묶고 현금과 직불카드·귀금속 등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씨(22·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등 2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 경찰 조사결과 중학교 동창생인 이들은 범행 당일 케이블TV를 보다가 이를 모방한 범행을 모의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당신의 발은 건강하십니까?

발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데와 베니슈

비데프라자

신뢰할 수 있는 10년 세월의 풍부한 경험과 관록의 비데전문기업!

비데프라자

노비타비데프라이프

비데프라자

082-515-1144

novita

신뢰할 수 있는 10년 세월의 풍부한 경험과 관록의 비데전문기업!

비데프라자

노비타비데프라이프

비데프라자

082-515-1144